

월/요/광/장

초기인



한겨울의 남극대륙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데다 최대 시속 150km의 바람은 서있기도 어렵게 하는 급단의 땅이다.

그지였다. 바로 '밀어내기' 방식이다. 펙킨들은 모여 있는 동안 쉬지 않고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동료들 원안으로 밀어 넣어 준다.

황제 펙킨과 相生의 경제학

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된다. 이 단순한 이타적 행위로 인해 원 바깥쪽과 안쪽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황제 펙킨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며 극한의 추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극한의 북보지인 남극대륙에 가장 가까운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인 팜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국토에 천연자원이

넘치고 인적자원도 우수하여 노벨상 수상자도 수차례 배출한, 한 마디로 천혜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그러나 2001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경제성장률 연 -5%, 실업률 20% 이상, 총인구 중 40%가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3등 국가로 전락했으며, 최근 다시 외환위기 조짐이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극단적 이기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치가 아르헨티나의 경제주체들은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자신만은 손해 볼 수 없노라고 고집하다가 위기를 키운 것이다. 황제 펙킨 공동체의 경우처럼 경제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다. 황제 펙킨들의 무리에서 한 펙킨이 쇠약해져 다른 펙킨을 밀어주지 못하면 순환 고리가 끊어지므로 그 펙킨은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도 회생가능성이 희박하여 부실의 도미노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경제주체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퇴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밀어내기'가 아니라 '밀어넣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최악한 경제주체들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기업과 근로자, 금융회사들이 서로의 시린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만이 이 한파에서 모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순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태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은행 '몸사리기'에 서민·中企만 죽어간다

시중자금의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넘쳐나는데도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서민 등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은이 최근 4개월 동안 시중에 풀 돈은 무려 2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저리로 공급받은 돈을 대출로 운용하지 않고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두고 있다.

서민과 중기의 자금난 심화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제난에 따른 수출침체에도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2월 임시국회' 민생·경제부터 쟁겨라

'제2차 입법전쟁'을 예고한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한 각종 정법법안들이 재차 다뤄진다는 점에서 기대 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 당장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아우르는 국회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버리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산지사'를 규명하는 동시에 이

른바 30개 'MB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보니 차치 지난번 '폭력국회'와 같은 불상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유산지사의 책임소재와 진상규명은 반드시 쟁겨 넣어 가야 한다. 하지만, '유산지사'에 매몰돼 당장 시간을 다투는 민생 및 경제살리기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민생·경제 살리기는 외면하고 또 다시 당리당략에 얽매어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고

전학철



2013년 하계U대회 실패 이후 그동안 우리는 재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질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2015하계U대회 유치 재도전'을 염원하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시민 공감대 뿐만이 아닌 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와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남겨 주었다.

대회 유치 재도전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하는가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Idea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시민들과 전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결국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2013하계U대회 유치 과정을 통해 얻은 FISU집행 위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치신청서 작성방법, 현지 실사 대비 각종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난 대회에서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4월에 방문할 실사단에 '감동'을 선물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발로 뛰는 유치전'에 돌입해

기고

김세곤



사실상에서 행정인턴 한 명을 뽑았다. 무려 20명의 대학 졸업자가 응시하였다. 면접 시 이들에게 남도의 자부심과 충의정신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하였다.

"광주에는 남도를 빛 낸 역사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호를 도로 이름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총장은 어느 분을 말합니까? 광산구의 고봉로는 어느 분이십니까? 북구가 앞으로 이를 지을 하시는 누구의 호입니까?"

총장료가 감덕령 장군을 기리는 도로 명이라고 5명이 답하였다. 그런데 고봉과 하서가 누구의 호인지 한 사람도 답변하지 못하였다. 어떤 면접생은 이

학문에 밀려서 대학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둘째는 우리의 초·중·고교 교육이 지역문화와 역사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나 서원이나 정자 같은 유적지 답사를 시켜 본 적이 없던가. 마당 대학입시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우리 선조들의 뿌리와 흔적 앞에서는 소홀한 것 아닐까. 셋째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의 중요성은 외치고 있으나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 문화 알리기에는 소홀하고 지역주민들도 지역문화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문화수도 광주에 사는 광주인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광주 8경 중 하나

총장로, 고봉로, 하서로

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하기가 면접을 위하여 남도의 역사 인물들에 대하여 공부하였을 리 없을 것이니까.

광산에서 태어난 고봉 기대승(1527-1572)은 퇴계 이황(1501-1570)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쌍벽을 이루는 학자이다. 그는 퇴계 선생과 7년이나 편지로 사단칠정논변을 한 것이요, 그를 모신 곳이 광산구의 월봉서원이다. 하서 김인후(1510-1560)는 자연 시조를 쓴 이요, 도학과 절의와 문장으로 존경받는 선비인데 장성 필암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문화와 역사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소위 문사철(文史哲)로 대변되는 인문학은 실용

나인 월봉서원이나 풍총사를 가시는지, 아니 평생 동안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문화가 밥 먹여 준다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문화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는 창의력과 성찰을 키우고 있어 이미 상당수 CEO들은 인문학 배우기에 열심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도인들이 남도 문화의 우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 지역 사람들은 남도문화의 향기에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남도 사람들도 남도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외지에서 손님이면 월봉서원도 구경시켜주고 풍총사, 소쇄원도 안내하면서 남도가 학문과 고대의 그리고 중류의 고장임을 은근히 자랑할 것 아닌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無等鼓

'희대의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이 연초부터 전국을 흉악범죄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강씨가 지난 2년간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살해된 부녀자 7명을 모두 살해해 암매장했다고 털어냈기 때문이다.

프로파일러란 범죄와 관련된 모든 물적 증거, 행적 등을 단서로 범인상을 추리해 사건을 해결에 기여하는 '범죄심리 분석관'을 가리킨다.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수사 요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범행준비와 실행, 시신 처리 등 일련의 범죄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범행 동기와 용의자 특정 등을 분석해 낸다. 수사관과 함께 신문에도 참여해 범죄자의 심리적 약점을 치밀하게 공략, 입을 열게 만든다.

국내에서는 아직 용어조차 생소하지만 외국에선 인기 드라마나 범죄 스릴러물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미국 NBC를 통해 4년 가까이 인기리에 방송된 '프로파일러'가 대표적이다. FBI의

프로파일러



전문적인 프로파일러 출신인 로이 헤이 줄무드는 자신의 저서 '프로파일러 노트'에서 끝없는 관찰과 인내, 수많은 경험에서 축적된 통찰력이 프로파일러의 역량이라고 소개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도 지난 2007년부터 2명의 프로파일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도 실종범죄자의 심리적 약점을 치밀하게 공략, 입을 열게 만든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화재시 대형참사 부르는 우레탄 '안전기준' 있었으면

불황여파 늘어나는 농촌 조손가정 지원대책 절실

화재가 날 경우 보통 불에 타 숨졌다거나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한다. 이때 불에 타서 화상으로 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90% 이상이 화재현장에서 타는 각종 물질의 연기, 즉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 숨지게 된다.

초고층 빌딩에까지 단열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이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석고보드를 앞에 댈 땀 화재시 평균 온도가 600도로 가열될 경우 8분이 지나면 유독가스가 퍼져 나오고 달걀 낳고 석고보드 열 때문에 10분이 안 돼 숨이 죽는다. 유독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0g 우

레탄이 탈 때 치명적 독가스인 시안화 수소 가 420ppm이나 나온다. 이 정도 농도면 5분 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우레탄을 단열재로 쓸 땀 유해가스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것도 2층 이상 건물은 안 되고 1층짜리 건물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우레탄 단열재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창고나 가건물에 그치지 않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같은 대형 건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최근 눈에 띄는 사회현상 중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경우 생활형편도 곤궁하고 대부분 빈곤층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도시의 조손 가정들은 자원봉사자와 각종 사회단체, 시설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농촌은 날이 갈수록 조손 가정이 늘어나고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큰 걱정이다.

농촌 조손 가정은 정부에서 양육비 26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 돌, 씻을 귀찮은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줄 수 없고, 학교 준비물조차 쟁겨주지 힘들다. 그러나 조부모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조건도 까다롭다. 농지가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정들은 조손가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

조손 가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빈곤층이 사라져야 교육·빈부의 양극화·가난의 세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옥익·순천시 인재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